

국민횃감 광어·우럭 가격 ‘펼쩍’ 코로나로 공급 줄고 수요 늘어

광어 도매가 2년전보다 58% ↑
우럭은 1만1천원→2만2천원
광어값 상반기부터 하락 전망

대구 북구에서 횃집을 운영하는 이모(50) 씨는 최근 광어·우럭 가격 급등에 반찬을 포함한 작은 사이즈 가격을 각각 5천원씩 인상했다고 했다. 이씨는 “광어와 우럭의 현재 가격과 오른 배달 수수료가 비하면 많이 올린 건 아닌데도 불만을 가지는 손님들이 있다. 모듬회를 드시라고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 횃감’인 광어와 우럭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23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어 도매가격(부산 기준·900g~1.0kg)은 1만8천100원이었다. 1만1천450원이었던 2020년 1월과 비교할 때 58.1%가량 오

른 것이다. 우럭 가격은 더 크게 뛰었다. 우럭 도매가격(부산 기준·500~600g)은 같은 달 2만2천원으로, 조화가 가능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2020년 1월(1만1천원)과 비교해 2배 된 것이다. 광어와 우럭의 가격이 공통적으로 상승한 시기는 코로나19 이후다. 2020년 5월 이전 1만1천원대이던 광어값은 이달을 기점으로 1만6천원대로 경총 뛰었고, 우럭은 같은 해 9월 이후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양식 업계가 코로나19로 횃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광어·우럭 물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싱싱함이 생명인 횃집은 통상 바다 등 현장에서 먹거나, 횃집에 직접 가서 사 먹는 음식으로 여겨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 수요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집콕’과

‘홈술’ 문화로 생선회를 집에서 즐겨 먹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마트에서 판매된 생선회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5% 증가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전국 성인 남녀 1천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소비트렌드에 따르면 응답자의 75%는 코로나19 전에는 주로 횃집에서 생선회를 소비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69.3%가 생선회를 집에서 먹는다고 했다. 마트 관계자는 “회 수요가 줄었다기보다는 소비자가 횃집을 구매하는 경로가 코로나 이후 배달앱과 대형마트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산업계 관계자는 “광어 가격은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차츰 하락할 전망이지만, 우럭은 광어보다 양식 기간이 긴 만큼 이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변선진 기자 bsj@maeil.com



우리집 공기 바꿔볼까 롯데백화점 대구점은 지하 2층에 있는 ‘대구화훼협동조합’ 매장에서 공기 정화 능력이 탁월한 병갈고무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대구 28개 기업 과제코디 지원사업 선정

지난해 93개 분야 23억 원 받아

‘R&D/비R&D 과제코디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장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각종 지원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R&D/비R&D 과제코디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28개 기업이 93개의 지원과제에 선정돼 23억9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정부·지자체 과제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파악해 공모사업이 공고됐을 때 시기를 놓치지 않게 안내해주며 자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역량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시는 62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사업분야, 규모, 업력 등에 맞는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과제 참여 전략을 제시한 뒤 사업계획서와 발표자료를 검토했다고 했다. 사업에 참여한 (주)예성글로벌은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12억원 규모의 과제를 수행하는 민군 기술이전사업에 선정됐다. 또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C-Lab 12기에 선정돼 대경기술지주를 통해 2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기업인 잇웍스는 이 사업 컨설팅을 통해 ‘도시형 소비재산업 글로벌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시제품·패키지를 개발했고 HACCP 인증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R&D/비R&D 과제코디 지원사업’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수사·정기 교육과 지식재산권 출원, 영상 제작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개발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과제 선정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과제코디 지원사업은 2월 중 공고 예정이며, 지원 자격 및 방법 등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www.dcc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원영 기자 chae10@maeil.com

의료용품 모든 품목 기술문서 심사 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케이메디허브)은 의료용품 모든 분야에 대한 기술문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술문서 심사범위 확대와 지정 갱신평가를 통과하면서다. 케이메디허브는 그동안 11개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심혈관기계기구 분야가 추가되면서 의료용품 전 분야 12개 품목군에 대해 기술문서심사를 지원하게 됐다. 또 3년마다 식약처에서 하는 갱신평가도 통과해 기술문서심사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케이메디허브의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난 2019년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채원영 기자

상인역 안내 가이드 로봇 뜬다

(대구도시철 1호선)

27일~다음달 6일 시범 운영
역사 내 운임·노선·시설 안내



LG 클로이 가이드봇을 통해 노선도를 확인하는 시민. LG전자 제공

LG전자는 대구도시철도공사와 협력해 대구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에서 LG 클로이 가이드봇 1대를 이달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인역은 대구시에서 무인 지하철 역사로 시범 운영하는 곳으로, 하이패스처럼 자동 결제되는 비접촉식 게이트와 언택트 화장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LG 클로이 가이드봇은 역사 내에서 운임, 노선도 등 지하철 관련 정보와 역사 내 주요시설을 안내한다. 시민이 로봇의 터치스크린에서 노선 정보, 시간표와 운임체계, 문화행사 등을 검색하면 화면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준다. 역사 내 편의시설을 찾으면 로봇이 직접 길을 안내하는 목적지 동반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또 시설

관련 정보를 문자로 보내주기도 한다. LG전자는 LG 클로이 가이드봇과 함께 실시간 로봇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등 통합 관제 시스템과 유지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상

수성고량주, 26일 SSG푸드마켓 청담점 입점

수성고량주는 오는 26일 프리미엄 슈퍼마켓인 SSG푸드마켓 청담점의 주류 매장에 입점한다고 밝혔다. 수성고량주 관계자는 “이번 SSG푸드마켓 청담점 진출로 백주의 참맛을 전국적으로 알리게 됐다”며 “일반 마트

에서 볼 수 없는 고급 술들과 나란히 소비자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1958년에 생긴 만생주점이 모태인 수성고량주는 경북대 발효생물과학연구소와 산학 협력을 통해 제품을 개발해왔고, 전국의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

통업체를 통해 유통해왔다. 수성고량주의 고급 백주로는 지난 2020년 출시된 ‘프리미엄 백주 43 리뉴얼’이 있다. 수성고량주는 “프리미엄 백주 43 리뉴얼은 붉은 수수로 만들어 달고 향기롭다. 도수가 높지만 목넘김이 부드러워 독한 맛이 없고 달다”며 “고품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공공구매 솔루션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유통채널

무한상사

SOCIAL COOPERATIVE

와 함께 하세요.

무한상사 활용하기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매개

공공기관
법정의무
공공구매 해결

정부권장정책사항에 따라
사회책임조달 연계 수행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연계 및 직접 계약 진행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창업기업 등 연계

muhancoop.co.kr T.1588-4378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123_2F